

2006 사회복지사 해외연수단이 추천하는 현지 코디네이터 해외여행시 기억하세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해외연수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각국에서 물심양면으로 연수단을 지원하고 있는 현지 코디네이터들. 연수기관 섭외에서부터 부식지원까지.

2006 사회복지사 해외연수단을 통해 들어보는 현지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활동내용을 들어보고 향후 연계 가능성에 대해 점쳐보자.



추천자: 김익태 한미을병원 사회사업실장

추

교학 citywide 사례관리팀 디렉터 | 미국정신보건팀

- ▶ 연수내용 – 미국 샌프란시스코 citywide의 case management에 관하여 지역사회와 정신과 외래 진료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관리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공부하였다.
- ▶ 코디네이터 소개 / 추천이유 – 추교학 선생님으로 citywide의 한국인 직원으로 사례관리 팀의 디렉터, 인턴슈퍼바이저를 맡고 있다.
연수 기간 동안 서로 신뢰하는 관계로 우리팀이 편안하게 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그분의 삶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약시라는 신체적 장애를 안고 있었지만 미국에서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상담가와 재활치료사와 같이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또 “어항속의 물고기처럼 투명한 삶이 있어야 좋은 치료자로 설수 있다”는 삶을 통해 느끼고 얻어진 가치들을 아낌없이 나누어주었다.
- ▶ 코디네이터의 역할 – 현지 숙박시설 사전 안내는 물론 집중 연수 자료제공 및 토론, 현장 방문 일정계획 및 조정, 지역 문화연수 소개 등 연수의 전반적인 자문과 지원
- ▶ 코디네이터의 필요성 – 목적에 적합한 연수일정과 그밖의 생활상의 안전 그리고 통역까지도 가능하게 되고 연수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 ▶ 향후 예비해외연수단이 코디네이터와의 관계 형성에 있어 유의할 점 – 코디네이터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연수단 혹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름의 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향후 지속적인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추천자: 류시혁 성동장애인복지관 팀장

정

태훈 성악가 / 황만수 트리어대학 사회학과박사과정 | 독일노인복지팀

- ▶ 연수내용 – 2008년 시행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지역사회복지기관의 대비 및 문제점, 보완점을 파악하기 위해 수발보험을 처음으로 시행한 독일을 방문하였다.
- ▶ 코디네이터 소개 / 추천이유 – 트리어대학 사회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황만수라는 대학원생과 성악가로 활동중인 정태훈씨가 우리 팀의 코디네이터로 활동해주었다. 담당했던 코디네이터가 학교 및 정부기관 등 연수에 대한 안내 경험이 풍부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연수 후에도 연락할 정도로 관계가 친밀하였다.
- ▶ 코디네이터의 역할 – 연수 일정 및 방문 기관 섭외를 비롯한 통역 및 이동, 문화탐방에 대한 소개를 받았다.
- ▶ 향후 예비해외연수단이 코디네이터와의 관계 형성에 있어 유의할 점 – 사전에 코디네이터와 연수단이 원하는 방향을 충분히 조율한다면 서로에게 유익한 연수가 될 것이다.

추천자: 김진섭 청주시자원봉사센터 교육부장

이

종건 영국 국제 자원봉사 프로그램 디렉터 | 제시형 영국팀

- ▶ 연수내용 – 영국의 런던시내와 버밍엄 등 도시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 관리자 연수가 주된 내용이었다.
- ▶ 코디네이터 소개 / 추천이유 – 이종건 영국 국제 자원봉사 프로그램 디렉터가 우리팀의 코디네이터를 맡았다. 결론적으로 무척 좋았으며 팀에 대한 배려가 감동 받을 정도였다.
- ▶ 코디네이터의 역할 – 방문 기관 섭외 및 일정 조절, 숙소 및 교통안내, 방문시설 현황 사전 조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 ▶ 코디네이터의 필요성 – 생소한 외지에서 코디네이터가 없다면 시작부터가 어려울 것이다. 외국의 경우 시설이나 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예약화가 되어있어 한국에서 섭외를 하고 방문일정을 잡는다는 것이 사실적으로 어렵다.

또 한국과 시차가 있어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는 것도 어렵고, 연수자 입장에서는 근무시간이나 야간시간에 맞추어 기관담당자와 통화하는 것이 어렵다. 숙소의 예약도 방문시설과 교통편이 원활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여려모로 현지의 코디네이터가 필요한 것 같다.

추천자: 맹현숙 목포장애인요양원 사무국장

제

시형 호주팀

- ▶ 연수내용 – 인권보장에 대한 내용의 연수였다.



- ▶ 코디네이터 소개 / 추천이유 – 여행사에서 담당했으며 가이드가 우리가 원하는대로 인도해 주었다. 아무래도 여행사 가이드이기 때문에 기관섭외와 관련한 부분은 약했다.
- ▶ 코디네이터의 필요성 – 코디네이터는 필요하다. 우리가 원하는 기관을 보다 쉽게 섭외할 수 있고 관련 자료 등을 먼저 접하고 갈 수 있다.

추천자: 서태원 굿네이버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홍보팀장

이 영미 휴먼서비스센터 간호사 | 미국 아동청소년복지팀

- ▶ 연수내용 – 미국 펜실베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휴먼 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연수를 실시 하였으며 아동보호사업(아동학대예방사업)의 운영실태와 그 외 민관협력체계(소년법원, 아동원조회, 수양부모협회, 링컨센터-대안학교, 사회사업가연수원 등)의 활동 및 연계상황을 소개받는 시간이 진행되었다.
- ▶ 코디네이터 소개 / 추천이유 – 휴먼서비스센터의 공적의료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Youngmi Joy Yi(이영미) 간호사가 우리팀의 코디네이터로 활동해주었다. 이영미 코디네이터는 연수단원이 필요한 정보를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었고 연수기간에 라면이나 김치를 제공해 주기도 하는 등 아주 편안한 분위기에서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 코디네이터의 역할 및 필요성 – 현지에서 통역 및 기관섭외 등을 담당하였다.
- ▶ 코디네이터의 필요성 – 한국에서 해외기관의 섭외는 문서와 사전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외 다양한 경험과 필요한 도움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지의 코디네이터가 방문 기관의 특성과 한국연수단의 사업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좋은 연수와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숙박이나 차량랜트와 같이 한국에서 섭외하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지의 좋은 코디네이터가 연결이 되면 훨씬 좋은 연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 향후 예비해외연수단이 코디네이터와의 관계 형성에 있어 유의할 점 – 현지의 코디네이터가 순수하게 도움을 준다고 하여도 반드시 적정수준의 사례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팀의 경우도 이영미 선생님께서 1주일의 휴가를 내고 도와주신 것에 감사하여 현지의 주급수준의 사례를 드렸다.



추천자: 천덕희 광주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 사회사업실장

이 효순 King' college / 이자영 | 영국 정신보건팀

- ▶ 연수내용 – 영국의 보건복지가 통합된 정신보건전달체계를 경험하고 있으며 영국 런던 및 셰필드 지역의 정신보건 관련 기관을 방문하였다. NHS하의 CPA(care programme approach)를 통한 공공의 보건과 복지가 통합된 서비스 전달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 코디네이터 소개 / 추천이유 – 현재 영국 런던의 King' college의 대학원생으로 한국에서 정신보건영역에서 함께 공부하고 의료기관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우리 팀이 무엇을 보고자 하는지 충분히 토의 될 수 있었던 이효순 선생님. 그리고 한국의 의료기관에서 일한 경험이 있

고 영국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이자영 선생님.

사실 두사람이 없었다면 영국의 휴가기관과 겹쳐 연수를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들을 현지에서 조율해주고 대체해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주었다.

- ▶ 코디네이터의 역할 – 기관섭외와 통역에 가장 큰 역할을 해주었고, 연구계획서를 준비하면서 정보제공과 사전연구에 지대한 도움이 되었다. 특히 학생 신분이어서 어려운 기관섭외조차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었다.
- ▶ 향후 예비해외연수단이 코디네이터와의 관계 형성에 있어 유의할 점 – 현재 세계 각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있거나 살고 있는 인적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리스트를 만들고 지속적인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며, 해외연수단의 코디가 되었을 때 그에 따른 활동 비용을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연수에서 습득한 정보 활용토록 지속적 교류

이종건 영국 국제 자원봉사 프로그램 디렉터

2006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제시형 영국팀 코디네이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초기부터 영국을 방문한 연수단을 세심하게 챙겨주고 있는 이종건씨. 한 연수생은 그의 현지 코디가 감동이라고 말할 정도로 낯선 환경에서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고 있다.

나는 1997년부터 영국에서 체류하고 있으며, The University of Sheffield에서 Diploma와 Master of Arts를 이수했다. 현재 International Volunteer Programme의 디렉터를 맡고 있다.

내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4년전의 일이다. 현재 내가 디렉터로 몸담고 있는 영국 국제 자원봉사 프로그램(International Volunteer Programme - www.ipv-uk.org)과 관련된 한국 분으로부터 당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맡고 계시던 협회 간사를 소개 받게 된 후부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해외연수사업의 코디네이터로 참여하게 되었다.

내가 맡고 있는 영국 국제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한국의 젊은 청년들을 모집하여 1년간 영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기에, 영국의 많은 비영리단체들(NGO)과 정부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진행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쉬웠던 것 같다. 단순히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한국과 영국의 사회복지 관련기관 및 사회복지사들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내가 활동하고 있는 곳은 영국의 수도 런던이다(57 Warren Street, London, W1T 5NR, UK). 매년 초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해외 연수단의 파견을 의뢰받으면, 협회 담당자 및 연수 팀장님과의 긴밀한 연락을 통해, 연수주제와 일치하는 기관방문이 될 수 있도록, 연수 기관 추천 및 선정, 문화체험 어드바이스, 숙소예약, 기관 가이드 및 통역, 그리고 기관 방문 평가까지 함께 공유하며 의견을 나눈다.

내가 연수를 코디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연수생들이 가능한 영국의 다양한 기관들을 방문하고, 정확한 정보의 습득 및 이해를 돋는 데에 있다. 왜냐하면 짧은 연수 일정속에서 많은 양의 정보를 분석 수집하고 이해하는데에는 오랜 기간 동안 현지에 생활해 보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연수 주제에 알맞은 기관의 섭외 및 안내이다. 둘째로, 연수 기간동안 연수생들의 단합과 서로를 이해하며, 같은 사회복지사들로서의 동질감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많은 역점을 두고 있다. 셋째로, 연수 종결 후 습득한 정보를 계속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나눔이라고 생각된다. SW